

희망의 탄생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시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노획물인 양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어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셨도다.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어느 이름보다도 빼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내리셨도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천상 지상 지하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두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도다.
 (필립 2,5-11)

희망의 빛으로 탄생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신비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역사의 굴레 속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무시는 사건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탄생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신비이다. 빛이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그 배경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더욱 강렬하다. “무거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고비에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옥좌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마치 사정없는 전사처럼 멸망한 땅 한가운데로 뛰어 들었다”(지혜 18.14-15).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요한 1.5 참조)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하듯이, 빛의 현존은 그 자체로서 심판의 현장이다. 심판이시며 동시에 희망이신 분!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당신의 기운으로 감싸 그 안에 꼴과 질서를 지어내시는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1-2). 이렇게 세상을 지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이 구약성서에서 때로는 ‘만남의 장막

을 덮고 있는 구름'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 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은 족속의 눈 앞을 환히 밝혀 주었다”(출애 40.34.38).

세상을 당신의 현존으로 감싸 그 안에 창조와 질서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께서 이제 성모님을 감싸 그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이루신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 오실 터이니,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분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니,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루가 1.35). 이로써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전해 주시는 새로운 만남의 장막이 되시며, 인간의 심연을 상징하는 그분의 자궁은 새로운 계약의 궤로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탄생하시는 자리가 된다.

세상 한복판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 사신 예수라는 분 안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노획물인 양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셨도다”(필립 2.6-7)라고 선언하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을 이제는 실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한다(1요한 1.1-3 참고).

그분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시간에 추상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 호적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 첫번째 호적등록은 퀴리노가 시리아를 통치할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등록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본관 고을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의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다윗의 고을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라 한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일족에 속했던 것이다. 요셉은 자기와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았다”(루가 2.1-7).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굽히시는 아이러니, 즉 하느님의 지극한 겸손을 엿보게 해준다.

루가복음은 특별히 몇몇 상징을 이용해 구약성서에서 미리 예표된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루가복음에 의한 세례자 요한의 출생기는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말라 3.1) 하는 말라기서의 예언을 반영하면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지닌 야훼의 특사가 화

해의 사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는 모습을 그린다.

그리고 예수 탄생기에서는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 다니엘 예언자에게 알리신 말씀, 즉 “하느님께서서는 정하신 기간인 칠십 주간이 지나야 네 겨레와 네 거룩한 도움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 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세우실 것이다”(다니 9.24) 하신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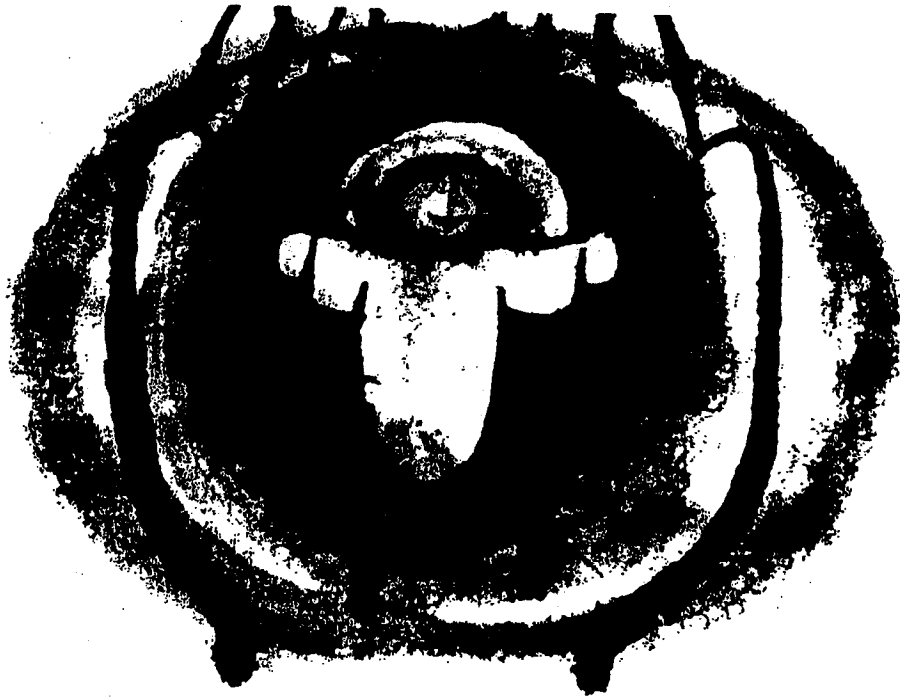
즉 루가복음서의 구상에 의하면, 모세가 정한 정결법에 따라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되는 날은, 즈가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사에게 요한의 탄생 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꼭 칠십 주간이 채워지는 날이다. 또 루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일 그 자체가 구원의 선포임을 드러낸다.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다음과 같이 하느님을 찬양한다: “주재자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 당신 종을 평안하게 풀어 주시나이다. 과연 제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친히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 이방 민족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로소이다”(루가 2.29-32).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은 축복받으소서!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루가 19,38) 하며 환호성을 올리는 군중들의 소리는 바로 밤을 새워 가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찬양노래와 같은 노래소리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14).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집약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 예루살렘은 이제 지상 전체를 의미하여, 예수께서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현존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 안에 숨어 계시는 분

루가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특이한 방법으로 묘사하면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하느님 현존의 몇 가지 특성을 구체화한다.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객사) 방에는 그들이 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루가 2,6-7). 그리고 이렇게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 바로 구세주를 알아보는 표라고 선언한다. “여러분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이니 이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표징입니다”(루가 2,12).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몇 가지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겠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께,
우리 인간은 따뜻한 방 한 구석조차 마련해 드리지 못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시기에 당신 스스로 '객사'에서 태어
나시길 피하신 것일까? 하느님께 아무런 자리도 내어 드리지
못한 우리의 비좁은 마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때때로 나의 마음 속에 감도는 냉
랭한 기운, 그 누구도 거기에 머물 수 없게 하는 차디차고 냉
랭한 기운을 감지하고 스스로 놀라는 때가 많다. 나그네를
너그럽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성서적 덕행으로
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웃 사랑의 구체적

인 실천이다.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시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인간은 어린아기일런지도 모른다. 아기는 말도 못하고 늘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분께서 지금 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신다. 아무 말씀도 못하시니 내가 그분의 입이 되어 드려야 하고, 내가 그분을 보살펴 드려야 한다.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무 힘 없는 아기로서 포대기에 싸여 누워 계시니 내가 그분의 수족이 되어 드려,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자유 속에서 묶여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무력하고 가난한 이들의 손이 되어 주고 발이 되어 주며 입이 되어 주는 것이 포대기에 싸여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살펴 드리는 일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구유에 누워 계시며 집 없는 이가 되셨다. 하느님께서 집 없는 이가 되셨기에, 그분을 내 집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모셔 드려야 할 것이다. 루가복음은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공동번역 루가 2,12)라고 말한다. 말 못하는 이, 말발이 없는 이, 힘없는 이, 자유가 없는 이, 약한 이, 병자, 고생하는 이, 가난한 이, 지독히 고생하는 이…… 바로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주님께서서는 그분들 안에 당신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

희망을 잉태하는 자궁이 되어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 오실 하느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탄생을 의미한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실 주님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분은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희망을 심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행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희망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잉태하시어 세상에 내어주신 성모님의 자궁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하며, 그곳은 바로 희망을 잉태하는 자궁이 되어야 한다. 절망어린 어둠 속에 희망을 품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때, 그분께서는 바로 거기에 현존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소서 주 예수님!”(묵시 22,20)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묵상 성구

- 루가 2,1-7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객사 방에는 그들이 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지혜 18,14-16 무거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 고비에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옥좌로부터 주

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땅 한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필립 2,5-11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셨도다.

루가 2,8-20 여러분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이니 이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표징입니다.

마태 2,1-12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였다.

요한 1,1-4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성찰

1. 내 삶의 주변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징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는 어떠한 징표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게 됩니까? 아니, 어떠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현존을 즉시 인식하고 느끼게 해줍니까?
2. 예수 탄생의 신비는 어떻게 하느님의 지극한 겸손을 엿보게 해줍니까? 이러한 하느님의 겸손이 당신을 본받고 싶어하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의 소리니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들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반으라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다 지방(주민)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

그 무렵의 일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보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왔다. 이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뵈 여겼노라."

(마르 1,1-5,9-11)

멋쟁이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실까? 어느 때인가 한 번은 '멋쟁이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나의 기도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분의 어떤 멋이 나의 모든 이상과 열정을 사로잡아 버린 것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성서를 살펴보면, 역시 하느님께 깊이 매료된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 혹은 남군의 관계로 묘사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삶 전체를 모조리 바쳐서 섬길 수 있는 영원하신 주인으로서 하느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와도 같이 친밀하게 함께 걸어 주시는 다정하신 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우리가 듣고 접하는 영성의 거장들이나 영웅적 삶을 산 성인 성녀들의 삶 역시 하느님께 깊이 매료되어 그분을 애인으로 때로는 임금으로 때로는 주군으로 섬긴 삶이다. 그 어떤 멋과 매력이 그분께 있기에, 그리도 수많은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접하고 결국 자신들의 꿈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던져 바칠 수 있는 것일까?

복음서의 증언

우리의 관심을 복음서의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자.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읽고 관상하며 기도할 때에는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선 복음서는 신앙고백서로서 믿는 이에 의해서 그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바를 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데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의 시종이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대로 엮은 것입니다”(루가 1,1-2). 어떤 의미에서 복음서의 증언들은 역사의 구체적인 인물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겪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의 역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인 의미의 역사라는 말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관여하신 특별한 사건을 이 역사가 담고 있다고 여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사가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들의 복음서를 통해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얹힌 개별적 사건들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사의 전체 맥락 안에서, 즉 창조로부터 온 우주의 궁극적 완성으로 이어지는 전체 구원사건의 맥락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

해되어야만 한다.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적 현존이듯이,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은 한 사건으로서의 구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구원역사라는 더 넓은 전체 맥락에서 특별한 구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들 하나하나를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구세적 사건을 중심으로 엮고 있음을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행적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다음과 같은 은혜를 구하라고 성 이냐시오 로올라는 그의 「영신수련」에서 제시한다: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을 구할 것이다”(「영신수련」 104). 기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애덕의 실천,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이며,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분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한다.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께 대한 깊은 내적 인식이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책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몇 권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외우면,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그분을 직접 알게 해주지는 못한다.

마치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듯,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서를 천천히 읽으며 기도하고 관상하는 것이다.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부탁드리 는 은혜를 들어 허락하신다. 복음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뵙고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적을 시작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 는 특별히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1.1)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전통의 절정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묘사한다. 출애굽기와 말라기 예언서(출애 23,20; 말라 3,1)를 자유롭게 삽입하고 이사야 예언서(40,3)를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적 가르침이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전례적 상징으로서 마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수용하겠다는 내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마르코복음은 급하게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의 선포 활동을 묘사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로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1,14-15).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가르침은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선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께서도 물론 회개와 삶의 근본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시지만, 이와 더불어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전통을 이어 받아 외형적으로는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기점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절정에 다다른다. 요한의 설교가 암시하고 있듯이 그가 베푸는 세례가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면(1.5),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걸림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느님의 지극하신 겸손이 이루시는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촉구한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고통받

는 야훼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하느님을 거스른 아담의 후예로서 죄스런 인간 공동체에 동참하시며 인간이 저지른 반항적 행위에서 인류를 구하고자 하시는 신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강생의 신비에서도 목상했듯이, 상처를 지닌 죄스런 인간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가까워지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영원하신 말씀이 지니신 구원적 겸손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신비이다.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보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왔다.” 창세기의 이미지가 다시 반복되면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가 묘사되고, 성령께서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묘사된다. “이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뻐 여겼노라’”(마르 1.10-11). 이렇게 당신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수행해야 하는 고통받는 야훼의 종으로서의 소명이, 이사야 예언서를 배경으로 예수님 자신의 내적 체험에 의해서나 혹은 사도적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구약성서에서 엿볼 수 있는 하느님의 여러 모습을 요약하고 있다. 그분

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 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참삶의 길을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당신을 “믿고 바라는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 (이사 40.31) 힘을 주신다. 그분은 또 “재판관으로 나타나” (말라 3.5)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의 죄스러움에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절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촉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앞에서 걸으시고, “우리를 도중에서 지켜 주시며”(출애 23.20) 참다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좋아하시고 양다리 걸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라”(신명 10.17) 하시며 우리를 일깨우신다.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배워야 한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를 관상하고 기도하며 그 모습을 거울삼아 삶을 쇄신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덧 우리는 우리 안에 형성되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배우려는 노력은 자신의 삶을 쇄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늘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심은 단지 과거에 대한 뉘우침뿐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자신의 삶 전부를 투신하고자 하는 내일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불러일으킨다. 이 새로운 결단은 이웃에 대해 작은 애덕을 실천하

게 하고, 더 크게는 인간성에 대한 숭고하고도 근원적인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묵상 성구

- 마르 1,1-11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노라.
- 출애 23,20-33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도중에 지켜 주며 내가 정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 가리라.
- 말라 3,1-5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온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 이사 40,1-31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 사도 10,37-43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쁨을 부으셨으니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 호세 2,16-25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낭군이 라 부르리라.

성찰

1.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특히 어떤 모습이 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분의 어떤 멋이 특별히 나의 이상과 열정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2.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의 한 전환적 시발점으로서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며, 나의 삶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나는 무엇을 시발점으로 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표징으로 삼을 것입니까?

그리스도교 영성의 샘 - 광야

그 때에 예수께서는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밤낮 사십 일을 단식하시니 마침내 허기지셨다. 그러자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라” 또한 “그들은 손으로 그대를 받들어 그대의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떠보지 말라’ 고도 기록되어 있다.” 악마는 다시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분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마태 4,1-11).

나의 진정한 내적 광야는 어디에

무언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친 인상이 '사막' 혹은 '광야'라는 언어에 담겨 있어서, 그곳은 악마들이 머무는 곳으로 연상된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거칠고 한적한 광야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에 그곳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곳,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곳이 되기도 한다. '사막' 혹은 '광야'는 그리스도교 특유의 장소로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움트고 자라난 곳이다. 그래서 영성의 거장들은 늘 이 '광야'에서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광야'는 내적 정화라는 영성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그 한적하고 메마르고 거친 환경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화를 의미한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홀로 외로이 있을 때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고독 속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자신은 사실 자신보다 훨씬 커서 도무지 자신의 의지로는 가늠할 수 없는 자기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든 영적인 애착이든 간에 수없이 많은 애착들, 이기적인 욕심들, 한없이 부풀어 있는 꿈들, 혹은 절망들에 둘러싸여 도무지 가누기 힘든 자기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향해 발돋움하려는 갈구를 눈치채며 서서히 정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나를 정화시키는 '광야'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혼잡스러워 도무지 홀로 있

을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시장 같은 장소가 새로운 의미에서의 '도시의 광야'가 된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관계들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일그러지고 모난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루는 관계의 다양한 양식들은 그만큼 더 강하게 나의 모난 구석들을 다듬어 정화시킨다.

수도자들의 양성 과정에서나 혹은 다양하게 운영되는 각종 영성 교육 또는 피정에서 가끔 '사막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그것을 운용하는 이에 따라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더 깊은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다. 어떤 이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오가고 시끄러운 시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체험은 늘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바라보게 해준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전한다(마르 1,12-13; 마태 4,1-11; 루가 4,1-13).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눈뜰 것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시느" (루가 4,18-19) 사

명을 수행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먼저 광야로 나가 기도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 외부로 향하기 위한 내부로의 집중이라고 할까? 기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행동은 기만이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분명히 위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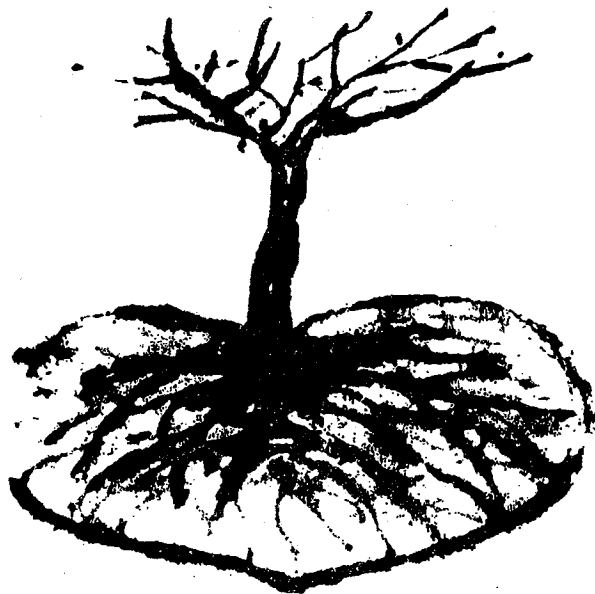
마르코복음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유혹 장면을 묘사한다: “그리고 곧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다. 그분은 광야에 사십 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1,12-13). 여기에서 ‘곧’이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의미한다.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서, 막연하게 이제는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던 순진한 기억이 떠오른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자동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자로서 몇 년의 수련 후에 서원을 발한다고 해서 그 순간 자동적으로 하느님께 흠없이 봉헌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제로 서품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사도로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는 봉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눈뜨게 해줄 뿐 아니라, 내 안에 깃든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경향들을 향해서도 눈뜨게 한다. 내적인 각성은 하느님을 향해 민감하게 해주는 그만큼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의 영역을 향해서도 민감하게 해준다. 하느님의 사랑에 진보하면 그만큼 더 강하게 죄의 힘에도 노출되는 것이라고 할까. 그렇기에 기도란 식별의 언어이며,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거슬러 사랑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게 응답하도록 촉구하는 현장인 것이다. 마르코복음서의 간단한 묘사 속에는 아담의 그릇된 선택에 의해 깨어진 일치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방도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화해와 일치가 담겨져 있다.

하느님 체험을 의미하는 상징들은 광야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모세라든가 엘리야, 혹은 호렙 산 등의 구체적 인물이나 장소들을 통하여 묘사된다. “그[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출애 3.1-2).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



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1열왕 19,8-9). 이 두 장면 모두에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인간적인 야심 혹은 열정 등과 대비되면서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도란 결코 어떤 내적인 영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택하도록 단도직입적으로 촉구하는 결단을 대면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별과 선택의 상황에서 악 혹은 유혹의 존재는 결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질투하여 그 관계를 일그러뜨리기 위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분명한 실체이다. 의심하는 소리, 하느님의 현존을 의심하는 소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매혹적으로 들려 온다. 의심하는 소리처럼 내면을 매혹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없다. 한겨울날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덮여 아름답게 보인다. 흥하고 더러운 것도 눈에 덮여 아른아른거리면 아름답게 보인다. 안개로 그 모습을 가려 희미하게 해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나로 하여금 몇에 걸리게 하는 것이 유혹의 특징이기도 하다. 유혹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단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인간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의 하나가 굶주림과 갈증이다. 우리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성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욕구와 갈증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갈증들을 느끼고 접하게 될 때, 때로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방안을 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위의 사람들과 올바르게 건전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갈망이다. 수도자들인 경우에 공동체의 평화롭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해서,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저런 임시적인 방안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하지만 모든 이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개방성과 수용성이라는 문제는 어떤 특수한 방법이나 처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욕구와 갈증을 상대하시면서 '일회용 구세주'가 되시길 거부하신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영역에 자리잡고 있는 자신 내부의 갈망과 굶주림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근원적인 신뢰와 의존의 태도를 강조하신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때로 우리는 인간됨을 부인하고 신성에 의존하라는 유혹을 만나게 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좌절들, 걱정들, 위험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그릇된 의미에서의 하느님의 섭리나 뜻을 이야기하면서 고독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거부하도록 유혹한다. 불의한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친지에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어리석은 도피일 수도 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적인 실존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고독하고 어두운 측면의 인생길을 거부하는 것은 때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떠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내게 엮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악의 유혹은 더 이상 회유적이지 않다. 그는 가면을 쓰지도 않고 자기를 은폐시키지도 않는다. 그는 직접적이고도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해 온다: 하느님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악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근원적으로 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정당화라는 합리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치선택기준들을 평가하면서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악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이 정도의 잘못은 괜찮겠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정한 내적 자유의 영역에 있다. 그 어떠한 이유 혹은 합리성에 의해서든지 악과의 타협은 궁극적으로 내부로부터 자유로움을 앗아간다.

예수께서는 참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엮드

려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참인간의 모범이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으로써 참다운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 새로운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불순종이 가져온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어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실상 한 사람의 범행으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였다면, 하물며 은총과 의로움의 은혜를 풍부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범행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단죄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로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은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을 통하여 지배하였듯이, 은총도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15.17-18.20-21).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봉사에 투신하도록 촉구하신다.

그리고 이 투신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을 당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예수와 죄스런 원수의 마음이 대립하는 갈등을 체험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자신이 택한 입장에 의해서 동료들로부터 고립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기에 연약한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신다(히브 4,15 참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권고를 늘 기억해야 한다: “세상도, 또한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과 재산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 욕정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1요한 2,15-17).

묵상 성구

- | | |
|------------|-------------------------------------|
| 마태 4,1-11 | 예수께서는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 루가 4,14-32 |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
| 로마 5,12-21 | 은총도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 |

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마르 8,31-33 썩 물러가라, 사탄아!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히브 4,14-5,10 우리의 대제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 외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야고 1,12-15 복되어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시련을 이겨낼 때에 그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성찰

1.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내적 광야는 어디일까요? 자신의 내면의 참모습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는 그곳을 '광야'라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2. 예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나 자신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유혹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봅시다.